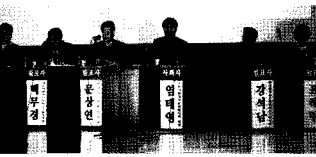


# 수원화장실 심포지엄



글이 석 규 (한화협 과장)



수원시에서는 1999년에 이어 제3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월드컵문화운동수원시협의회와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가 주최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선 아름다운화장실 콘테스트 시상식을 비롯하여 표어, 낙서, 만화, 시 공모전의 수상작도 함께 시상하였다.

## 제3회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

### 행사개요

일시: 2001년 11월 29일(목) 13:30~17:00  
장소: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3층)  
주최: 월드컵문화운동 수원시협의회,  
수원시 화장실문화협의회, 수원시

### 시상식

시상식은 월드컵문화운동수원시협의회 심재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백홍식 수원화장실문화협의회 부회장의 심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백홍식 부회장은 이번 심사보고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화장실문화에 대하여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또한 이번 아름다운화장실 콘테스트에 대한 수상은 수원시에서 매달 시행되는 으뜸화장실 콘테스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범업소 중에서도 한번의 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아름다운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업소를 선별하여 심사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선진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하여 표어, 포스터, 낙서, 만화, 시 공모전과 아름다운화장실 콘테스트에 대한 수상자에 대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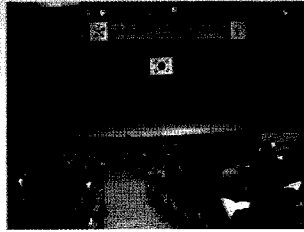
상이 있었다. 심재욱 수원시장(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불과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낙후되었던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수원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한 문화운동을 지속하여 화장실이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구촌 60억 인구의 눈과 귀가 집중될 월드컵을 대비하여 World Best World Cup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하였다.

### 세미나 개최

제1부 주제인 『선진화장실문화 소개와 지역사례 발표』는 염태영 회장(수원화장실문화협의회)의 진행사회로 시작되었다. 재미있는 세계의 화장실과 그 문화를 발표한 조의현 대표(산본연구소)는 화장실에 대하여 시대별, 나라별로 이색적인 사진자료(추후 미소공 소개)와 함께 소개를 하였다. 한국의 전통뒷간 복원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이동범 편집위원(전국귀농운동본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동범 위원은 발표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뒷간의 유형과 생태뒷간의 설치사례를 발표하고 이미 도시화 비율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현재의 수세식화장실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농촌이나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의 경우는 얼마든지 생태뒷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전통적인 화장실문화에서 얻어야 할 것은 전통뒷간의 생태성이고 버릴 것은 우리 뒷간의 더럽고 냄새난다는 편견이며, 바꿀 것은 뒷간의 낡은 시설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역우수사례발표에서 서울시화장실수



▲ 심포지엄과 함께 사진전시회 및 포어, 시, 만화 등 수상작들을 전시하였다.



▲ 심포지엄에 많은 관람객이 참석하였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표자와 내빈들.



▲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준향상반의 백무경 반장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문화개선사례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다. 우선 화장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개선과 시설수준의 향상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우리모두가 바라는 깨끗하고 청결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지며 시에서는 우수화장실표창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화장실 관리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고 년1회 이상의 세미나와 전시회, 홍보물(CD, 비디오테잎)을 보급하고있으며 사실상 도심지역에는 부지 난으로 공중화장실의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역우수사례발표 두 번째로 김천시의 문상연 계장(사회복지과)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2000년 도민대전,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앞두고 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심히 간과하기 쉬운 화장실부분을 정비하여 화장실 때문에 “다시 찾고싶고, 다시 가고싶은 아름답고 매력있는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발표하며 추진내용으로 아름다운화장실 시상,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시회를 20회 이상 개최하여 화장실문화개선의 붐을 조성하고 화장실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였고 김천시에서도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화장실협회가 발족되어 민간차원의 활발한 운영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깨어진 창문이론을 설명하였는데 지하철 뒷골목이나 헌집에 깨어진 유리창을 방지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져 파괴적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뉴욕 시에서 과감하게 많은 돈을 들여 창을 말끔히 새것으로 교체한 후 범죄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아름다운문화가로 탈바꿈 한 것처럼 말끔한 유

리창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하고 아름다운화장실문화 가꾸기 사업이 언젠가는 친절·질서·청결·정직을 기본목표로 하는 문화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2부『정책제안 및 화장실문화운동』에서 강석남 사무국장(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은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한 법의 제정과 내용이라는 발표에서 99년 이후 아름다운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 여러 곳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노력한 결과 이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부터 전라남도 해남의 땅 끝 마을까지 화장실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문화운동이 이제는 단순히 시설개선과 이용문화개선에서 법률제정운동으로 커다란 전환점에 서있다고 말하였고 이제는 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의 모델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수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화장실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포혜령 사무국장(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발표가 이어졌다. 포혜령 사무국장은 그 동안 시민연대에서 일하며 현장에서 겪었던 일과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논란이 되고있는 공중화장실의 건축비, 재래식화장실의 개선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끝으로 심포지엄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수원시 공설운동장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분이 관리자측의 입장에서 화장실을 상품화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더 좋은 화장실 문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